일 주 문



싱글만남 템플스테이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12월 17~18일 경내서 '제2차 싱글의 만남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크리스마스 자비나눔

마가 (사)자비명상 대표 스님은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백사마을서 '산타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봉사'를 실시한다.



승려복지기금 기탁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재)아름다운동행에 승려복지기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겨울 철야정진법회

이황우 부산 새말귀선원 법사는 12월 19일부터 1월 1일까지 새말귀선원서 '겨울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부고 김원각 前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이 12월 1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일산병원에 마련됐다. 시조시인이기도 한 고인은 〈숟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등 다수의 대중불서를 저술했으며, 한글대장경 윤문 등 역경사업에 참여했다.

"문화재포교로 불교위상 제고"

Interview

문화유산보호 대통령 표창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우리나라 문화재 중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는 어렵다거나 난해하다고 생각하죠. 불교계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면 사람들이 문화재와 가까워지는 동시에 불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포교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진병길 경주 신라문화원장(52 · 사진)이 12월 8일 열린 문화재청의 '2016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봉사활용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상은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 · 활용 등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진 원장은 먼저 "혜국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도움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공을 돌린 뒤 "경주에 불교문화재가 많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한 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3년 문을 연 신라문화원은 개원 이래 경주 소재 문화재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신라달빛기행을 비롯해 △경주 고택체험 △어린이 문화학교 △경주사랑 역사문화탐방 △살아 숨 쉬는 서원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 지역사찰서 활용하면 대중포교 효과 이어져

진 원장은 "1994년 경주 칠불암에서 처음 시작한 신라달빛기행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까지 참여 지자체만 20곳으로 확대되고, 서울 창덕궁 달빛기행이 이를 벤치마킹해 의미가 남다른 프로그램"이라며 "달빛기행은 불교문화자원을 답사하고, 사찰서 탑돌이를 하는 등 불교를 대중에 쉽게 전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불교계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라문화원도 어려움은 있었다. 창립 초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지적과 함께 신라문화원의 수명을 2~3년 정도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진 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열정에 힘입어 일자리전문기관 시니어클럽과 각종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게 됐다. 문화재 특성을 잘 살린 덕분이었다.

진 원장에게 불교문화재는 구태의연한 포교서 벗어나 신포교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됐다.

진 원장은 "불교문화재가 무수히 많지만 불교계가 문화재 보존에는 비교적 미흡했다. 현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좋아진 만큼 문화재에 애정을 갖고 포교적 시각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면서 "이 시대에 문화재를 잘 활용하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면서 대중포교로 이어질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화재를 알리고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낮은 자세로 초심을 되새기며 묵묵하게 일하는 개인, 그리고 신라문화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백용성 스님 사상 · 저술 '한눈에'

대각회, 12월 13일 총서 고불식



(재)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는 12월 1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원로의원 도문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는 용성조사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돌이켜보는 소중한 자리"라며 "4년여 동안 총서 발간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강천사, 순창군에 이웃돕기 성금

12월 14일, 군청 방문해 500만원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12월 14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종고 스님은 "경내 수각 앞 모금함을 비롯해 강천사 대중이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 기회를 통해 종교인으로서의 삶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보공양운동 공로 표창

승려복지회, 개인 · 단체 선정해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보공양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동국대 경주병원 원무팀, 봉은사 교무교육팀, 前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대치노인복지센터 관장 지현 스님, 홍연술 불자에게 수여됐다.

동국대 경주병원 원무팀은 2015년부터 병원에 입원한 스님들에게 승려복지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입원진료비 신청 등을 지원했으며 봉은사 교무교육팀은 초하루 법회와 불교대학 종단필수교육, 기초학당 수업 때마다 홍보활동을 진행해 후원자 증대에 기여했다. 덕산 스님과 지현 스님, 홍연술 불자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승보공양 후원자 확대에 기여했다. 노덕현 기자

청봉 스님 문도회 결성

대원불교조계종, 초대회장에 법현 스님

(사)대원불교조계종이 종정 청봉 스님 문도회를 조성하고, 초대회장에 법현 스님을 임명했다.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2월 8일 양산 불광사서 '청봉 큰스님 문도회 초대회장 법현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부회장은 법진 스님, 총무 해안 스님, 감사 지혜 스님이 임명됐다.

법현 스님은 "부족한 소승에게 중책을 맡겨줘 무한한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하는 문도회, 열심히 노력하는 문도회를 만들어가겠다. 종회의원 스님들과 회원 스님들의 기탄없는 조원과 성원 부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무원장 해오 스님은 봉행사서 "법현 스님은 그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불사를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청봉 큰 스님의 영도력과 문도회장 법현 스님의 혜안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불교활동가 더욱 늘어나길"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



동출 스님이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에게 지원금과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마다 불교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는 동출 스님이 올해로 13회째 행사를 이어갔다. 올해에는 △김양희 불교합창단 지도자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 △용수사 이주민쉼터 센터장 우르겐라마 스님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 △한국원폭2세 환우생활쉼터 합천 평화의 집 △416기억저장소 등 개인 4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됐다.

동출 스님은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열린선원서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선정된 활동가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민불동지회, 근본불교연구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나마스떼코리아 등이 동참해 마련됐다.

동출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불교활동가가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광주생명나눔, 자비의 김장

제22회 자비의 쌀 · 김장나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1일 5.18민주광장서 나주동신대 교직원, 후원자 등이 봉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자비의 쌀 ·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무애암, 공옥진밥차, 성상기업 등이 후원한 행사서 2000포기 김치와 3000kg의 쌀을 지역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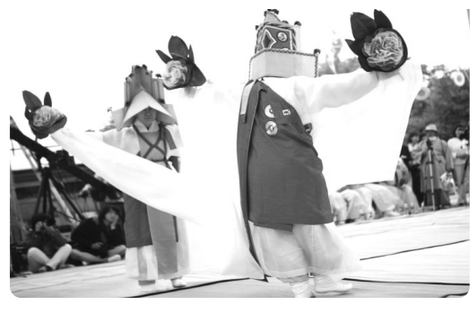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